

# 목포 문태고, 세계조경가대회·ACC 융복합전시회 관람 성료

###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30년만에 광주서 개최

###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축제

문태고등학교 지난 1일 1,2학년 재학생 21명과 교사 1명으로 이루어진 당일형 체험학습단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와 ACC 융복합전시회 관람을 성료하였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세계조경가대회란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조경 행사로, 2~3천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고, 각 국 총리와 장관,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축제이다. 대회는 개최 도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시를 알리는 플랫폼으로도 활용된다. 그리고 세계정원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정상회의, 도시 축제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재생도 꾀하고 있다.

도시환경 및 조경 분야의 '국가 및 도시 브랜드' 상승 효과와 경제적 파급력이 크며, 각 나라와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기후변화 및 녹색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조경가대회는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최하는 조경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 광주에서 개최된 이래로 30년 만에 광주에서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이다. 40여개국 1000

명 내외의 조경전문가들은 광주에서 동시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위기, 팬데믹, 도시쇠퇴 등의 난제를 풀어갈 솔루션으로 '조경의 공공성'과 '조경의 회복성'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기조강연 및 학술논문 발표 ▲라운드테이블 ▲스페셜 세션 ▲IFLA 조경·정원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국제행사였지만, 학교일정상 9월 1일 하루만 참여하게 되었다.

새롭게 선출된 학생회 임원진들과 농생명 환경 계열로의 진로를 지닌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결성한 팀은 '배움과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힘들 내색없이 일정을 소화하였다. 특히, 행사 조직위원회 김봉오 교수님과 소중한 만남의 시간 이후 조경자재/조경건설/조경교육 등으로 진행된 IFLA 조경·정원 박람회에 참여하여 제품과 브랜드 전시, 취업



박람회, 토크콘서트 등에도 빠짐없이 참여해 즐거워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박람회의 주제는 ▲K-Landscape Culture ▲K-Landscape Future ▲K-Landscape Architecture였고,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

공사/산림청/문화재청 등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운영 되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특히, 문화재청은 한국 전통정원 연출 기법 <차경>을 소개했는데,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나주교육청, 안성현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개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은 나주 출신 작곡가 안성현 선생을 기리고 나주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금) ~ 3일(토) 남고문 야외무대에서 '안성현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

에서 주최하고 나주이화유스오케스트라 학부모회의 주관으로 기획·운영되었으며, 나주시경찰서의 협조로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날 공연에는 나주교육지원청 나주이화유스오케스트라, 빛가람초등학교(빛가람 Dream 오케스트라), 나주중학교(예지드림), 남평중학교(포텐), 매성고등학교(우당탕탕밴드), 광남고등학교(블화더스, 맨스리믹스), 나주고등학교(데스파시도), 영산고등학교(YS밴드)가 참가하여 음악을 통해 자기의 기량을 맘껏 펼치고 관객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주=송준표기자

## 순천대 사회봉사단, 순천SOS어린이마을과 '어울림캠프' 성료



국립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최근 3일간 순천SOS어린이마을과 함께 '어울림캠프'를 열고, 경주역사문화탐방에 나섰다 밝혔다. '어울림캠프'에는 순

천대학교 멘토링 참여 학생 5명과 교직원 1명, 그리고 SOS어린이마을 아동 24명 등 총 3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해설사와 함께 불국사, 대릉원, 최부

### 경주역사문화탐방 나서

자택, 월정교, 첨석대 등 탐방하며, 책에서만 보던 유적지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SOS어린이마을 김효승 원장은 "아이들이 경주역사문화탐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멘토들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며 캠프를 추진한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순천대학교 심상덕 사회봉사단장은 "앞으로도 순천SOS어린이마을과의 교류를 통해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까지 활동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해남공공도서관, 독서 인문 강좌 운영

해남공공도서관이 8일 부터 16일까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꾸리는 이를 위한 독서인문 강좌 '함께 읽을 결심' 수강생을 모집한다. '함께 읽을 결심'은 독서회에 참가하여 책 읽기를 실천하고자하는 이를 위한 강좌로, 효율적인 독서회 운영 방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고 도서선정부터 독서 토론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강좌는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19:00~21:00에 운영되며, 익명에서 오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참

여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 개인 신상을 노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는 독립서점을 운영하며 다수의 독서회를 구성 지도한 경험이 있는 윤소희 동화작가가 맡았다. 윤소희 작가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대학교에 다년간 출강한 이력을 가진 재원으로, 이번 강좌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독서회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담양공공도서관, 독서의 달 프로그램 운영

담양공공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지혜의 바탕화면, 책으로!'라는 주제로 9월 한 달간 '독서의 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공연인 어린이 국악극 <명기덕쿵덕>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애니메이션과 국악 라이브 연주가 더해진 공연은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내 손으로 만드는 무드등 ▲내 손으로 만드는 그림책 ▲내 손으로 만드는 독서가방 체험프로그램을 같은 날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플라이북 이벤트 ▲과월호 잡지 나눔 ▲원화전시 ▲테마도서 전시는 9월 한 달간 상시 운영된다. 25일에는 담양공공도서관 스마트도서관(담빛점)이 위치해 있는 양우



내안에 퍼스트힐 1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내 손으로 만드는 가족 책갈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